

점·선·면과 추상미술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묘사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점, 면, 선 등의 조형 요소에만
집중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추상 미술과 깊이 관련된답니다.

미술사에 등장했던 추상 미술 작품을 살펴보기로 해요.



작가의 감정
적극표현

■ ■ ■ ■
선명하고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작가의 정신과 감정을 표현했다.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

칸딘스키는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이탈하여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음률과 리듬감을 표현했다.
화려한 색채와 비정형적 형태를 통해
역동적이고 감성적인 추상표현을 완성했던
칸딘스키의 작품은
이지적인 몬드리안의 추상 형식과 구분하여
'뜨거운 추상'이라고 부른다.

칸딘스키
(Kandinsky, Wassily/1866~1944/러시아→프랑스)
에드윈 캠벨을 위한 패널
(캔버스에 유채 물감/163×122.5cm/1914년)



작가의 감정
철저히 배제

몬드리안

(Mondrian, PietCornelis/1872~1944/네덜란드)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캔버스에 유채 물감/46×46cm/1930년)

몬드리안은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해 면을 분할하고 화면을 구성하여 조형의 보편적 질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차가운 추상(기하학적 추상)

대상의 형태와 조형적 질서를 파악하고자
의도적으로 점·선·면·색 등의
기하학적요소로
면을 분할하여 표현했다.

몬드리안은 나무를 순수 조형적 요소로 파악하고
단순하게 변형하여 나가는 과정을 연작으로 실험했다.
이후 몬드리안의 작품은 선과 면, 색채의 기하학적이고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붉은 나무

캔버스에 유채 물감

70×99cm/1908~10년



회색 나무

캔버스에 유채 물감

79.7×109.1cm/1911년



회색 나무

캔버스에 유채 물감

79.7×109.1cm/1911년

차가운 추상(기하학적 추상)

데쿠닝
(De Kooning, Willem/1904~1997/네덜란드→미국)
여인 1
(캔버스에 유채 물감/192.7×147.3cm/1950~52년)



추상 표현주의

추상 표현주의는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하던 시절
1950년대의 미국 추상회화를
가리킨다.

전통적인 표현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탐구했고,
격렬한 동작으로 붓을 휘두르거나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 놓고 물감을
뿌리기도 하는

자유로우면서도 충동적인
표현 기법을 보여준다.

1947년 일본에서 유학하던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등이 결성했던 '신사실파'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추상 미술이 본격 시도되었다.
또 1950년대 후반부터는 추상 미술이 화단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효시



유영국(1916~2002/한국)

산 있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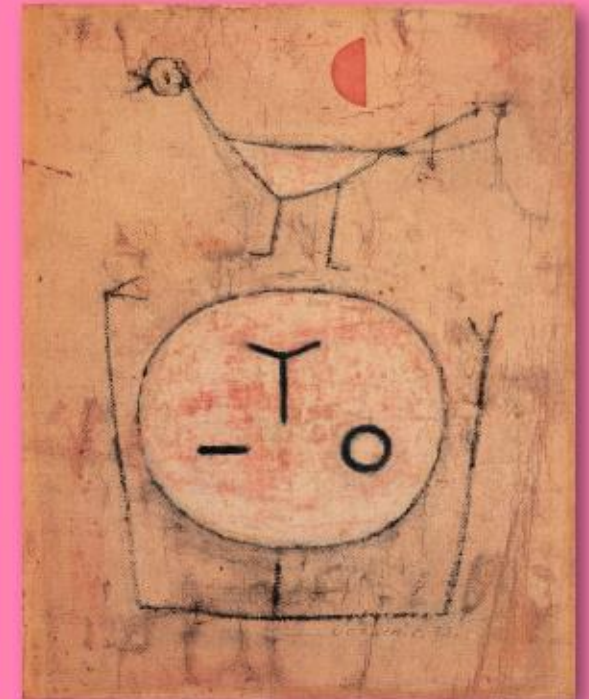
(캔버스에 유채 물감/130×97cm/1955년)



김환기(1913~1974/한국)

정원

(캔버스에 유채 물감/81×100cm/1956년)




장욱진(1917~1990/한국)

새와 아이

(캔버스에 유채 물감/27×22cm/1973년)

어떤가요?
추상미술이 어렵다구요?
뭘 그렸는지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니
어려워 지는 거랍니다.

'추상' 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성이 없어서 사실이나 현실이 떨어져 막연하고,
형태와 성질을 뚜렷히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요.

자료제작 : 전성아 <http://arteducation.kr> 

그럼 어떻게 감상하냐구요?
작가가 이것을 나타냈을때의
감정이 어땠을지 정도만 가늠해보고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추상화를 대하는 마음이 좀 편해 졌나요?